

모든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
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" (고린도후서 5:18)

주후 2017년 12월 성탄의 계절에...

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선교지의 작은 불꽃 삼아주시고 한해동안
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

아내와 딸 조이가 선교지에 합류하면서 두 아들 은우 지우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해였습니다.
위기도 있었지만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

새로운 전도대상과 지역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니 감사합니다.
내륙지역 전도여행과 적합한 전도지가 인쇄되어 사용케 되니 감사합니다.

인근지역에 작은 사무공간과 교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.

현지교단과 지역교회를 지속적으로 동역하며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.

여름단기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.

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더 좋은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

타도시에 거주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새 교제권이 열려 감사합니다.

오랫동안 간구해왔던 기도를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

동역자님의 기도와 함께 베풀어주신 사랑은
저희가 선교사역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

Sretan Božić i Blagoslovljenu Novu godinu!

-Merry Christmas & Blessed New Year-



크로아티아 2017/2018
박찬신 김경애 조이 & (은우 지우)

hallus@hotmail.com
hallussarah33@gmail.com